

종교 -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다

‘세계종교 둘러보기’

오강남 지음
현암사 / 1만5천원

불교·기독교·이슬람 등 12종교
창시배경·주요경전·관습 소개

“종교간 대화 없이 종교간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간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신학자 한스 쾰)

2001년 기독교를 뒤집어본 책 <예수는 없다>로 화제를 모았던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교수(캐나다 리자이나대 비교종교학과)가 세계의 종교를 나란히 살펴본 채 깊이있게 들여다본 책 <세계종교 둘러보기>(현암사)를 펴냈다. 세계 종교를 두루 소개하는 입문서는 여럿 있지만, 이 책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만 추려 짚어주는 안목이 뛰어난데다 배타적 종교관에서 벗어나 종교간 대화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이 책에서 다루는 종교는 불교, 도교, 유교, 동학,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유대교, 신도, 조로아스터교 등 12가지이다. 각 종교의 창시배경, 주요 경전, 핵심적인 가르침과 오늘날의 모습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각 종교가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고찰한다. 대표사원이나 주요 신상, 종교 지도자, 종교관습 등을 담은 화보를 실어 풍부한 종교 읽기를 도왔고 더 읽으면 좋을 책도 소개했다.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종교학 개론’이라 할 만하다. 지은이는 각 종교의 변천사를 설명하면서, 어

느 종교도 순수하거나 유일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의 본향은 예루살렘이지만 신학적 전통은 그리스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힌두교는 인더스 문명과 아리아 문명의 혼용으로 태어났고, 그 줄기에서 자이나교와 시크교가 뿔어나왔다. 도교는 도가사상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사상을 띠며 한국에서는 사마니즘에 흡수되었다. 신앙의 강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며 어느 곳에서는 말라 버리기도 하고 어느 곳에 물을 대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특정 종교의 우월성을 부인하면서 진리는 서로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산꼭대기는 하나이지만 그리고 올라가는 길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은 종교간의 대화와 화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종교환경운동이었다.



◇오강남 교수

은 여럿이다.”고 한 힌두교의 성자 라마크리슈나의 말이 대표적이다.

25년간 세계 종교를 종횡으로 가로지른 끝에 지은이는 세계 종교의 현재 모습에 비추어 새 시대의 종교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교리보다 깨달음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나 기복보다는 실천에 주목하는 서구 불교 등을 거론하면서 ‘종교는 궁극 실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체험’이라는 자신의 종교관을 드러낸다. 또, 세계 종교에서 공통으로 가르치는 자비, 사랑, 어짐의 이상을 실현하자고 강조한다. 9.11 테러 이후 더욱 거칠어진 세계의 종교 근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종교간 대화와 관용의 정신을 거듭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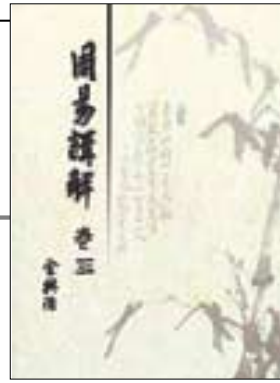
몇 해전 <예수는 없다>로 한국 종교계에 도발적인 문제 제기도 마다 않았던 지은이는 “남의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잘못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자신의 종교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ews.com



‘주역강해 1·2·3’

김홍호 지음
사색 / 각권 1만5천원



불교적 시각으로 주역읽기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가장 대표적인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인의 심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던 시절, 초기 불교화자들은 중국인들의 정신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그들은 특히 중국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노장사상과 유교의 뿌리인 <주역>에 주목했다. 이들 사상의 틀을 통해 불교를 재해석한 격의불교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불교의 중국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 기독교 목사가 동양인의 정신적 뿌리인 <주역>을 기독교적 시선에서 해석해낸 책이 나와 시선을 끈다. 기독교가 동양정신의 뿌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신호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석 유영모의 제자로, 전 이화여대 교목이자 감신대 교수인 김홍호 목사(84세)는 지난 40여 년 동안 동양고전과 성경을 강의해왔는데, 특히 19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주역>을 강설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이것을 풀어 이번엔 출간한 것이다. 더욱 관심을 끌는 것은, 그가 주역을 강의하며 해석에 있어서 가장 신뢰했던 책이 명나라 우의지(吳翊寅)의 <주역선해(禪解)>였다는 점이다. 이 책은 탄허스님의 우리말 번역으로 이 땅에 소개되었다.

김목사는 이 책에서 주역의 핵심 원리를 불교의 삼법인(三法印)에 비유한다. 만물은 변화한다는 ‘변역(變易)’의 원리는 제행무상에 해당하고, 그 원리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불역(不易)’은 제법무아에 해당하며, 이 역의 원리를 파악한 인간의 삶은 쉽고 간단해진다는 ‘간이(簡易)’는 열반정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역선해>의 본에 따라 땅을 뜻하는 ‘곤(坤)’ 괘를 석가모니불의 상징으로 본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목사는 ‘건(乾)’ 괘는 공자의 상징이며, ‘둔(屯)’ 괘는 예수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또한 곤 괘의 육효는 육바라밀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리고 땅의 덕을 표현하는 직방(直方)을 불법승 삼보로 해석한다.

김목사는 곤 괘의 핵심인 ‘황중통리(黃中通理)’를 팔괘는 이사무예법계에, 육십사괘 만물화생은 사사무예법계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태극도’의 태극은 ‘오위도’의 상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주역>과 <화엄경>의 내용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단지 전자는 천명(天命)사상이기에 태극에서 시작하지만, 후자는 성불사상이기에 태극에 해당하는 상불이 마지막에 온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김목사는 선불교의 ‘불립문자’라는 말을 단순히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선불교가 교학까지 두루 섭렵하여 마침내 문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경지까지 도달했다고 해석한다. 선종이 교종의 팔만대장경을 다 잡아먹고 소화 완료를 선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제는 기독교가 동양고전을 소화시켜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종교 간의 이해가 보다 깊어지리라 믿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불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타종교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홍호 / 문학평론가

<주역강해 1·2·3>은 다석 유영모 선생의 제자인 김홍호(84) 전 이화여대 교수가 주역을 노장사상과 불교, 기독교 등과 관련지어 재해석하고 오늘에 던지는 교훈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책이다.

좌선 인체장기기능도 강화

30여년간 선심리학을 연구해 온 일본 도쿄 고마자와대 이광준 교수(선심리학연구소)가 선심리학을 포함한 한방심리학의 학문적 정립을 모색한 <한방심리학>(현암사)을 펴냈다.

이 책에 따르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생각하는 한방심리학은 인간개체를 자연의 일부로 통찰시켜 생각하는 정체관(正體觀) 사교방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한방심리학의 학문적 과제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적인 특징을 연구하고 심리적 과정을 탐구해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한방 심리학’

이광준 지음
현암사 / 3만원

치료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지은이는 자신의 주전공인 선심리학 관련, ‘선과 한의학의 심신관은 상호 소통되며 사람들에게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길을 열어주는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즉 선이 깨닫고 자하는 것은 마음이며, 그 마음은 한

방철학에 있어서 ‘신기(神氣)’의 개념이라고 한다. 선이 지향하는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뇌의 기능이 갖는 의식수준의 깨달음으로부터 신체 내 부기관이 갖는 무의식수준의 깨달음으로까지 발전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인격의 전체적인 성숙성과 유연해지는 정신·신체적 기능이다.

그렇다면 좌선은 생리,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험결과에 따르면, 좌선은 의식의 변화와 특이한 뇌파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장기의



기능도 강화한다. 조신(調身)과 조식(調息)에 결하여 조심(調心)하는 좌선을 하게 되면 신선한 공기속의 산소는 폐도를 자극하고 혈행을 부드럽게 해서 뇌에 영계 물러있던 혈액을 고르게 분산시켜 준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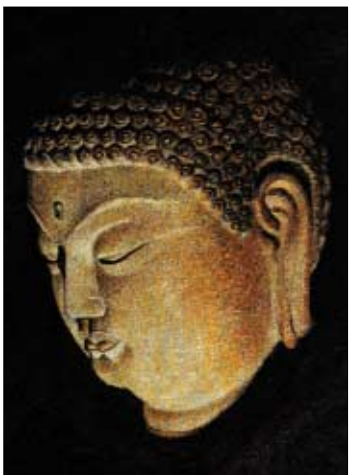
천년신비 ‘핸드 포토’ 불교자수 간직하세요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누구든 원하는 소재·크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세계 최고 최대의 예술적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전통 손자수를 어떤 형태의 주문에도 만족하게 제작해드립니다.



불교자수 특징

- * 단 하나뿐인 명품' 세계적 인정
- * 명주실·천연염료 사용... 사진보다 더 사실감
- * 예술적 가치높은 손자수... 시간 지날수록 진가 더해
- * 법당 탕화·불화로 적적

용도

- * 불화(탱화, 불보살도)
- * 불교인물화(역대고승, 종정등스님)
- * 불교성보(탑, 종, 범당, 불상 등)
- * 가족기념사진(결혼, 약혼, 회갑 등)
- * 기업기념사진(창립주최상, 승진, 당선축하외국인선물용 등)
- * 고급인테리어소품(호텔, 백화점, 공공건물, 가정집 등)
- * 뜻깊은장면사진(역사적인장면, 기억에 새길경관 좋은 경치 등)

주문시 유의사항

- * 머리리카락, 눈동자의 동공과 눈썹까지 도려내 표현된 세밀한 사진일수록 좋습니다.
- * 옷의 질감이나 문양이 그대로 표현되므로, 독특한 질감의 의복이나 화려한 의상 일수록 작품이 더욱 돋보입니다.

주문안내

- * 대형 (60cm×80cm) * 중형 (30cm×40cm)
- * 소형 (20cm×30cm)

특별보급 작품

- (15×20cm)을 180,000원 특가로 판매합니다.
- 수월관음, 지장보살, 석굴암부처님 불두.
- 만공·한암·효봉·동산·청담·성철스님 등 근세 고승 진영.

* 소장용·선물용 모두 만족을 드립니다

주문 마하몰 전화 (02)732-1520 팩스 (02)737-0697 www.mahamall.co.kr

